

社 說

영북공단 추진계획 밝혀라

포천시가 지난 2002년 접경 지역지원법이 발효되면서 영북 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북면 주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포천시는 2004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완료했으나 수도권경비계획법에 의한 공급지역불량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다.

이름하여 공급총량제에 묶여 영북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표류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 포천시 행정 담당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포천시는 이와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단계에서 수도권경비계획법의 상위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법당시 국회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문제를 의의한 것은 결국 포천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전문성 부족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말이다.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에 대한 관심부족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제정 등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예 도외시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방자치단체가 인물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부서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을 제대로 이끌어갈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중국은 1년에 2000명씩 국가를 이끌어갈 동양을 집중 교육시킨다고 한다. 2천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해를 거듭할수록 인원은 줄어든다. 결국 국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만 최종교육과정까지 남게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인재육성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면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우수한 공무원을 영입하여 대형사업 추진에 투입해야 한다. 그것도 안된다면 외부인사를 계약직으로 영입하는 개방형공무원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최근 포천시는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형사업이 용역단계에 있다. 용역보고가 끝나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용역보고라는 것이 원론적인 이상을 추구하여 만들어진 문건이며 지역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용역보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다. 이들 공무원들이 용역보고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영북산업단지조성사업 계획은 지난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공단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전도 보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포천시가 영북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중앙부처간의 혼선때문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는 영북면은 물론 포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영북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郷土원로초대석 ① 忠穆壇 都有司 鄭仁和



정 인 화
충목단 도유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고 핵가족화 가속화로 노인들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하는 충목단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 한다

도유사 정인화(84·사진·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50)옹을 만났다.

송우리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농사훈련소에 지도생으로 입소해 시흥군 서면에서 면서기로 활동하기도 한 정 옹은 잠사통계주식회사에 근무하기도 했다.

정 옹은 196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와 해동산으로 피난을 갔고 수북이 후 산에서 내려오자 산아래 아군들이 반갑게 맞이할 때가 생애 최고의 큰 기쁨이었다고 한다. 1954년부터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가 52세 되던 해에 고향으로 돌아와 유도회 소흘읍 지회장으로 포천향교 장외로 공자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다고 한다.

정 옹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젊은사람들이 북한을 무조건 좋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장마리튼협회 회원으로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한 정 옹은 “건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며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유지를 위해 매일 30분 정도 25가지 운동방법을 개발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옹은 “부지런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일을 할 때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신체를 젊으면 값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천유도회에 대해 정 옹은 “다른 종교 들은 헌금이 많이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유도회 만큼은 그런 활동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도회도 회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공

자님의 말씀을 받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의 강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싼 값에 되사야 하는 억울한 실정에 양식이 없어 초근목피로 살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다고 밝히는 정 옹은 국가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과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포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정 옹에게서 포천의 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의 열과 정신이 점점 퇴색해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선비정신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고 있으며 전통문화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으며 전통이 무시된 현대예술이 깊은 뿌리를 담보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포천의 열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온 향토원로들로부터 포천의 열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와 포천의 비전에 대해 듣고자 한다. 현재 포천의 향토원로로 구성된 포천명유회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향토원로초대석을 기획·보도한다. 포천명유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원로를 추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포천시의회 홍성훈 議長 選出

개표 홍성훈 10표, 이흥구 2표, 김영오 이병욱 1표
홍 의장, “포천시의회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 선출된 홍성훈 의장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및 의회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성훈 의원을 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포천시의원 14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고 실시된 의장선거에서 홍성훈 의원 10표, 이흥구 의원 2표, 김영오 의원 1표, 이병욱 의원이 1표를 득표 했다.

이번 의장선출은 최태중 前의장이 사퇴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새로 선출된 홍성훈 의장은 최 前의장의 잔여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 선출된 홍성훈 의장은 “미흡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포천시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의장은 “먼저 무거운 짐을 진 노점이다. 최 前의장이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제4대 포천시의회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최 前의장의 직접적 사퇴 요인이 사퇴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새로 선출된 홍성훈 의장은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이미 민사법정을 마친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승남 기자 form65@paran.com

홍성훈 의장 인터뷰

“시장 3년간 재선활동 했다고 생각”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취임 소감은

- 뜻하지 않게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먼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전반기 의장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임기는 평의원으로써 정리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역대 포천시의회 중 4대 의회가 가장 집행부 견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에 대해서

- 부정하고 싶지 않다. 의원 중에서는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다. 4대 포천시의회 의원 임기도 이제 13개월 남았다. 의원들이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를 대비하고 보니, 의원 본인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시켜, 집행부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은 그때 그때 지적하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다. 특히 홍보성 예산부분은

철저히 감시하겠다.

집행부와 관계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각종 행사나 사업현장 방문에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3년 동안 재선을 위한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은 집행부에서 피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예산이 상정된다면 철저히 감시하겠다.

시장과 관계가 좋다는 말에 대해서는

-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매일 행사장에서 만났다. 행사장에서 만나다 보니 주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원만하다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또 만남 횟수가 많았던 것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원만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의장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계획을 수립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최 前의장이 추진했던 사항을 마무리하고, 최근 구성된 포천시의회 자문위원회를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생산적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또 포천시 쓰레기 소각장이나 각종 도로망 사업 등 계획만 수립된 포천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중앙관계 부처를 방문해 포천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는 물론 각종 활동을 할 계획이다.

지역 미담제보와 정보제공 앞장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가산면지부 간담회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가산면지부는 지난 24일 제1차 간담회를 가졌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가산면지부(지부장 임고수)는 지난 24일 오후 7시 송우리 시내 음식점에서 제1차 간담회를 갖고 지역 미담제보와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최호영 발행인은 “항상 포천신문이 지역정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각 읍면동 지부별로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여 건전한 지역의 매체인 포천신문이 보

다 공정한 보도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장은 “기사제보는 멀리 있는 이야기를 제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주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며 “조사위원회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임고수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가산면지부장은 “조사위원회 가산면지부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서로 단합하고 친목을 다져 본연의 업무수행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각 위원소개와 함께 가산면지부 추후에 양종진씨(동호 대표)를 선출하기도 했다.

양종진 가산면지부 총무는 “부족하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가산면지부는 임고수 지부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청, 전화국번 530에서 538로 변경

현재 530으로 시작하는 포천시청의 전화국번이 6월 5일부터 538로 일제히 바뀐다. 시의회를 비롯해 읍면동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반월아트홀 등의 국번 역시 538로 변경된다.

또 국번 뒤에 붙는 4자리 일반번호의 첫 숫자가 8xxx에서 2xxx로 바뀐다.

따라서 현재 530-8114인 포천시청 대표번호는 538-2114로 변경된다.

포천시는 기존 530 국번으로는 전화회선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538로 국번을 변경하기로 했다

고 지난 25일 밝혔다.

한편 이번 전화국번 변경은 포천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화국번을 530 539로 변경키로 발표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엔 전화국번과 번호까지 함께 바뀌는 방식을 시도했으나, 기술상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 기를 연기했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방식은 국번만 바뀌고 행정전화번호에 사용되는 번호는 기존 행정전화번호를 유지한 채 시행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랑의 LAMP운동 마음까지 훈훈

가정의 달 맞아 정보보안과 앞장서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복)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외롭게 지내며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등 ‘사랑의 LAMP 운동’을 실시했다.

강준희 정보보안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 25일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군내면 이보형(男·89세) 할아버지에 게 쌀과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민수무장을 당부했다.

정보보안과는 “앞으로 직원들은 매일 자신의 일급에서 일일액의 성금을 모아 우리의 가족을 도운다는 마음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한 이웃과 독거 노인 등을 지원하는 사랑의 LAMP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등 사랑의 LAMP 운동을 실시했다.

광복 60년-남북관계의 회고와 통일전망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05 학술발표회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원장 양무복)은 오는 6월6일 일요일 오전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2005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학술발표회는 광복 60년-남북관계의 회고와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로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민족적 과제인 통일의 방향에 관해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개회식에 이어 남북관계의 전개과정과 통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전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제1,2,3주제로 나누어 주제발표를 갖는다.

제1주제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동국대학교 유광진 사회교육원장의 사회로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발표와 경기대학교 류재갑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안규 교수, 통일연구원 전현준 기조실장,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박승식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

제로 대진대학교 정일화 통일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발표, 이삼만 중앙대학교 교수, 윤미량(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 신지호(서강대학교 겸임교수), 박강문(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순사상의 역할에

대해 김재완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최동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발표에 이어 황필호 강남대학교 교수, 노태구 경기대학교 교수, 변진승 한국종교인명화회의 사무총장, 이경원 대전대학교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가한다. 제3주제 발표후에는 배성동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논평자와 주제별 사회자가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실시하고 만찬을 끝으로 학술발표회를 마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포천신문) including contact details, pricing, and a QR code.